

2020년 8월 3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과 장 이기중(044-201-2551), 서기관 황성철(2555) / 제공일: 8월 28일(총 3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, 조기 시행

-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방안 일환 -

### 《 주 요 내 용 》

□ 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\*,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검출 등 심각한 방역 여건에 따라,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83% 확대\*\*하고 2개월 빠른 9월부터 조기 시행

\* 2020.8.28일까지 전 세계 507건 발생(전년 동기 184건), 유럽 331건(전년 동기 10건), 중국·대만·베트남 등 주변국 142건(전년 동기 77건)

\*\* ('19년) 전국 84개 지점 192.6km 구간 → ('20년) 234개 지점 352.3km(거리대비 83%↑)

□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\*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 원인 중 가장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(35.3%)됨에 따라,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임

○ 올해는 지난해보다 철새도래지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,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 강화\*

\* (기존) ①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(H5·H7형) 검출 지점 중심  
→ (확대) ① + ②야생조류 다수 서식지점 + ③인근 가금농가 다수 분포 지역

□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소속 회사, 차량 운전자, 가금 농가·단체 등에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와 우회조치 이행 철저 협조와 농가 진입 시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)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\*과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검출 등 심각한 방역 여건\*\*따라,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2개월 빠른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.

\* 2020.8.28일까지 전 세계 507건 발생(전년 동기 184건), 유럽 331건(전년 동기 10건), 중국·대만·베트남 등 주변국 142건(전년 동기 77건)

\*\* 올 8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건 검출(8.18. 경안천, 8.20. 양재천)

□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\*,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(35.3%)됨에 따라,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.

\* < 2014년 이후 고병원성 AI 발생농가별 유입 원인 >

- 출입차량(35.3%) > 축주·종사자(23.6%) > 쥐 등 야생조수류(17.2%) > 인근 전파(13.4%) 순

○ 지난해는 철새도래지-축산차량-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,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.

□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제지점을 세분화\*하고,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\*\*을 강화하여 설정하였다.

\* (기존) 80개 도래지별 1~2개소 통제

→ (확대) 도래지별 다수 통제지점 설정, 일부 하천변은 전체 통제

\*\* (기존) ①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(H5·H7형) 검출 지점 중심

→ (확대) ① + ②야생조류 다수 서식지점 + ③인근 가금농가 다수 분포 지역

○ 이에 따라,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,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,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하여 약 83% 확대된 수준이다.

\* ('19년) 전국 84개 지점 192.6km 구간 → ('20년) 234개 지점 352.3km(거리대비 83%↑)

□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, 지난 8월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, 검역본부·지자체·관련 협회 누리집에 게시 및 현장 홍보물(현수막·입간판 등)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.

□ 농식품부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, 축산차량 소속 회사, 차량 운전자, 농가·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,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바퀴, 흙받이 등 차량 외부의 세척·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에 대한 손·신발·의복 등 대인 소독을 실시하여 “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”라는 마음으로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